

「마음 열고 | 찬양과 나눔」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찬송 545장, 구 344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1945년 이후 육상계에는 ‘마의 4분 벽’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의학자들은 ‘인간이 4분 안에 1마일(약 1.6km)을 주파하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라며 이는 신체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로저 배니스터는 이 한계가 신체가 아닌 마음에 있다고 믿었고, 결국 1954년에 3분 59초 4의 기록으로 그 벽을 넘어섰습니다. 놀랍게도 불가능해 보이던 그 기록은 그 후 수많은 선수에 의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이라는 돌을 치울 때, 비로소 ‘가능’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마음 다해 | 말씀과 나눔」**1.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려 하십니다(38-40절).**

- 1)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마르다는 무엇이라 말합니까?(39절)
-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40절)

나눔 1 마르다의 의식을 지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이젠 끝났다’며 스스로 굳게 닫은 마음의 돌문이 있지 않습니까?

2.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41-46절).

- 1)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42절)
- 2)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44a절)

3)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44b절)

나눔 2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을 죽음의 결박에서 해방하고 생명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눔 3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반전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막혔던 벽이 문이 되고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였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 마음 모아 | 함께 기도 」

삶 _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돌을 옮기게 하소서.

공동체 _ 우리 공동체가 사망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이웃을 자유케 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찌 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대로 늘 믿으며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서리라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 세 믿음 위에서 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세 믿음 위에서 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